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17 (화요일)

[오늘의 한 줄]

'5천피'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5,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9개월여 만입니다. 젠슨 황 후폭풍, 앤트로픽 상장 자금 쏠림에 더해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커지는 삼중고 속에서 (언론 전망 단계이며 연준의 실제 결정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사흘째 1조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내일 오전 6시 20분(한국시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향합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17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4,968.48 (-132.02, -2.59%). 12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 (-7.57%). 종가가 4,000대를 기록한 것은 2월 2일 (4,949.67)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4,076조원으로 4천조선 턱걸이.
- 올해 흐름: 상반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101.14% (글로벌 주요 지수 중 1위) 오르며 6/19 장중 9,385.59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하반기 들어 수직 낙하해 장중 최고점 대비 -47.06%까지 밀렸습니다 (연합뉴스). 종가 기준 연중 고점(6/22 9,114.55) 대비 -45.5%, 하반기 고점(9/23 7,080.92) 대비 -29.8%. [계산]
- 코스닥 650.06 (-15.59, -2.34%).
- 공포지수(VKOSPI) 53.64. 2거래일 연속 상승.
- 반도체: 삼성전자 190,300원 (-3.30%), SK하이닉스 109.8만원 (-1.96%), 삼성전기 754,000원 (-3.95%). 두 대장주는 장중 고점 대비 각각 -49.19%, -63.24% (연합뉴스).
- 전력기기 3종도 큰 폭 하락: HD현대일렉트릭 378,500원 (-5.61%), 효성중공업 164.6만원 (-5.57%), LS일렉트릭 113,600원 (-4.22%).
- 원화는 21시 기준 1,336.7원. 달러 인덱스는 간밤 103.64로 52주 최고치.

출처: 연합뉴스 마감 기사, CoreJang(VKOSPI), 네이버 금융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7065451008
https://www.corejang.co.kr/briefs/2026-11-17-close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 -1조4,430억원.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로, 사흘 누적 약 3.3조원입니다. 기관은 +5,436억원으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 (금융투자 +7,977억원이 받아냈고, 연기금등은 -84억원으로 매도세 진정, 투신 -1,692억원, 사모 -596억원). 개인 +4,218억원, 기타법인 +4,806억원.
- 코스닥: 외국인 -896억원, 기관 -249억원, 개인 +1,152억원.
- 누적(9/23부터, 네이버 기준 집계 이어 계산):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41조3,353억원, 코스닥 약 2조4,164억원. [계산]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각에 따라 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15:35 기준).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7128600008

■ 미국 시장 (11/16 월요일 마감)

- 반도체 주도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28% (9,610.65), 나스닥 -2.49% (24,509.76), S&P500 -1.92% (7,416.59), 다우 -1.41% (51,608.17).
- 엔비디아 156.14달러 (-4.12%), 아이온큐 26.45달러 (-8.41%), 샌디스크 -8.58%, 마이크론 -7.62%, 코어위브 49.88달러 (-6.12%), 오라클 -4.99%, 팔란티어 160.39달러 (-4.52%), 구글 -4.07%, 아마존 257.75달러 (-3.34%), 블랙스톤 -2.65%, GE버노바 -4.93%.
- 하락 배경: (1) 미 산업안보국(BIS)이 엔비디아 등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원격 접속을 통제하고 동남아 국가와 브라질로의 수출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며 수출 규제 강화 우려가 현실화 (대신증권 이경민). (2) 세미애널리시스가 AI 컴퓨팅 수요와 자본지출(CapEx) 전망을 하향 조정. (3) 실적 발표와 앤트로픽 상장을 앞둔 경계감.

출처: 야후파이낸스, 연합뉴스, AP
https://apnews.com/article/stocks-markets-ai-nvidia-oil-us-35786b8f539ec95f16ae0500f71cfcc7

■ 매크로: 금리 체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 미 10월 근원 소비자물가(CPI)가 전월 대비 +0.3%로 예상을 웃돌았고, 헤드라인 CPI는 +0.4%였습니다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과 관세,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 이에 언론과 증권가에서는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0.5%p 인상(빅 스텝)까지 거론합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보도에 근거한 언론 전망 인용이며, 연준의 실제 결정은 아닙니다). 연준 공식 캘린더상 다음 결정은 12/8~9 FOMC 회의입니다.
- 미 국채 10년물은 5.12% (11/16 재무부 확정, -3bp). 재무부 확정치 기준 3회 연속 5% 위 (11/11 공휴일 미발표). 2년물 4.83%, 30년물 5.46%. 10년-2년 스프레드 +0.29%p. [계산]
- 한국 국채 3년 3.727% (-1.2bp). 일본 30년물은 4.03%로 1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닛케이, 진행 중).

출처: 연합뉴스, 한국경제, 미 재무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108658i
https://home.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interest-rates/TextView?type=daily_treasury_yield_curve&field_tdr_date_value=2026

■ 내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 무엇을 봐야 하나

- 엔비디아 공시 기준: 미 태평양시 11/17 오후 1시 20분 실적 발표 (한국시간 11/18 오전 6시 20분 예정), 컨퍼런스콜은 오후 2시 (한국시간 오전 7시). 크레스 임시 CEO 체제의 첫 성적표입니다.
- 컨센서스(비저블알파): 매출 1,093억달러 (전년 대비 +92%), 데이터센터 매출 1,018억달러. 회사 가이던스는 1,080억달러 ±2%.
-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 "시장은 실적 호조를 상당 부분 예상하는 만큼 매출과 이익보다는 차세대 GPU 공급 계획, 2027년 AI 투자 수요, 금융 지원

지속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 참고: '매출 공유 계약 중단'은 WSJ의 11/15 단독 보도 단계입니다. 원문은 페이월로 직접 읽지 못했고, 연합뉴스 전문 인용과 후속 보도로 보도 자체는 확인했으며 회사의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계약별 총액·상환 조건·자금 수요가 다르므로, 크레스가 일반적인 '지원 유지'를 말하더라도 순환금융 우려가 그것만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앤트로픽 일정 (한국시간): 공모가 확정은 미국 11/18 저녁, 한국시간 11/19 (목) 아침으로 예상됩니다. 거래 시작은 미국 11/19, 한국시간 11/19 밤 11시 30분 개장 후이며 첫 체결 시각은 유동적입니다 (티커 ANT, 희망가 70~78달러).
- 수요: 11/12 블룸버그 보도 시점 약 6배, 11/15 블룸버그 2차 보도(TNW 11/16 인용) 시점 약 7배에 근접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둘 다 소식통 인용 기사 기준일 수치이고 최종 확정 수요가 아닙니다.
- 10월 FOMC 의사록: 연준 공식 캘린더상 '결정 3주 후 공개' 규칙에 따라 미국 11/18 오후 2시, 한국시간 11/19 (목) 새벽 4시 공개 예정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

■ 채권·환율·원자재

- 유가는 안정세: WTI 85.72달러 (-3.21%, 11/16 마감). 미국-이란 군사 갈등이 소강 상태이고 원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브렌트 92.84달러, WTI 86.26달러 (한국시간 14시 기준, 진행 중).
- 금 3,870달러 부근 (+0.4%, 진행 중).
-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소매 연료가: 항공유 갤런당 4.035달러, 경유 4.204달러 (11/11 기준일). 새 주차는 아직 미게시.
출처: 연합뉴스, 네이버 금융, EIA

■ AI 가격 신호 3종 (11/16 미국장 기준)

왜 보는가: AI 투자 열기의 온도를 재는 세 가지 온도계입니다.
1. 반도체 대 나스닥 괴리: 최근 20거래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5.07%, 나스닥 -7.27%로 괴리 -7.80%p. 지난주(-5.06%p)에서 크게 확대. 반도체가 시장 전체보다 두 배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계산]
2. 빅테크 대 취약 AI 평균 낙폭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메타·알파벳) 평균 -22.38%, 취약 5종(팔란티어·아이온큐·코어위브·오라클·블루아울) 평균 -44.95%.
엔비디아는 -34.73%입니다.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11.20%.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계산]

[판단]

- 하락의 성격이 또 한 단계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가 '사람 리스크'(황 스캔들)였다면, 이번 주는 '돈 리스크'입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고 12월 금리 인상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언론 전망 단계이며 연준의 실제 결정은 12/8~9 회의입니다), AI 밸류에이션을 떠받치던 유동성 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BIS 수출 규제와 세미애널리시스의 수요 하향이 겹쳤습니다. 5,000선이라는 심리적 지지가 사라진 지금, 반등 근거는 가격이 아니라 실적에서 나와야 합니다.

- 수급의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과대 해석은 경계합니다. 연기금 매도가 -5,647억원에서 -84억원으로 줄고 금융투자가 7,977억원을 순매수한 것은 하루치 거래 주체의 변화일 뿐입니다. 바닥을 말하려면 이 흐름의 연속성, 현선 차익거래 가능성, 전체 수급 방향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금리 급등의 한 축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 판단을 바꾸는 조건: (1) 11/18 오전 6시 20분(한국시간) 실적 - 컨센서스 충족은 기본이고, 크레스가 '금융 지원 지속 여부'에 뭐라고 답하는지. 다만 일반적 유지 발언만으로 순환금융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별 조건이 다름). (2) 11/19 앤트로픽 상장 흥행 여부 - A 조건 해제와는 무관하게, 조달 환경 개선의 참고 지표로 봅니다. (3) 12/8~9 FOMC의 실제 금리 결정.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4,968.48 아래일 것" - T+1(11/18, 수), T+5(11/24, 화)에 각각 검증합니다.

[복기]

어제와 닷새 전의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16 판단: "코스피 종가가 5,100.50 아래일 것" (T+1, 11/17 검증) → 실제 종가 4,968.48. 적중.
- 11/10 판단: "코스피 종가가 5,239.13 아래일 것" (T+5, 11/17 검증) → 실제 종가 4,968.48. 적중.
- 해석: 닷새 전 반등 속에서 본 하방 전망이 처음으로 급락 국면과 맞물렸습니다. 누계 35건 중 21건 적중.
- 한계: 이 복기는 '종가가 어제보다 낮을지'만 맞추는 단순한 규칙의 성적표이고,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관측이라 독립적인 시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력의 증거가 아니라 참고 기록입니다.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미확인 (판정 보류). 자금조달 압박 보도는 이어지지만, 정의상 2건 충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1) 네비우스: 사상 첫 하이일드 채권 발행을 준비하다 철회했다고 WSJ(11/3)·로이터(11/9)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철회 '결정일'은 10월 중으로만 알려져 11/17 기준 30일 창 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소식통 인용 보도이지 회사의 공식 확인이 아닙니다.
(2) 엔스케일(Nscale): 기업공개를 11월에서 12월로 연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WSJ(11/3) 소식통 보도가 있으나, 1개월 연기는 정의상 실패·철회와 같지 않아 집계할 수 없습니다.
보조 신호(집계 제외): 람다는 일부 투자자 불참으로 pre-IPO 라운드 목표 가치를 145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하향했고(WSJ), 로이터(11/9)는 일부 대출기관이 앤트로픽·구글 보증 딜조차 주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미애널리시스의 CapEx 전망 하향은 자금조달 실패·철회가 아니므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판정 한계: 사건의 '결정일'을 보도가 특정하지 않으면 30일 창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사건일이 확인된 실패·철회가 창 안에 2건 쌓이면 충족으로, 창 밖으로 밀려나면 미충족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앤트로픽 상장 흥행은 이 조건의 해제 사유가 아니며, 조달 환경 개선의 참고 지표로만 봅니다.
출처: WSJ(온인베스트 인용), 로이터(피벗뉴스 인용)
https://en.oninvest.com/article/wsj-weak-links-suffer-first-as-high-yield-bond-market-all-but-closes-to-neoclouds
https://pivotnews.ai/invest/lenders-pull-back-from-ai-debt-deals-after-selloff-sources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 또는 지급 유예: 미충족. 오늘 확인한 검색 범위 안에서는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미충족. 블랙스톤이 -21.64%로 이틀 만에 기준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폴로 -16.44%, KKR -17.20% (11/16 종가). 2사 조건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KKR이 기준선까지 3%p 남았습니다.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확인. 공시 하향은 없습니다. 세미애널리시스의 수요 전망 하향은 회사 공시가 아닙니다. 내일 오전 6시 20분(한국시간) 엔비디아 실적이 이 조건의 분기점입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버노바·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유지). GE버노바 -35.01% (11/16 종가), HD현대일렉트릭 -68.30%, 효성중공업 -58.92%, LS일렉트릭 -60.14% (한국 3종 11/17 마감). [계산]
- 종합: 확정된 충족은 E 1개('2단계' 해당). A와 D 2개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 (가능 범위 2~4단계).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끝)